

보도시점 (온라인) 2026. 7. 7.(화) 12:00
(지 면) 2026. 7. 8.(수) 조간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 국민에게 묻는다 26일 ‘모두의 토론회’ 개최

- 광화문의 역사성과 현대적 가치 등의 접점을 찾기 위한 대국민 공론장 마련
-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소통혁신24’ 등 통해 국민 참가자 200여 명 모집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를 주제로 범부처 정책 소통 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를 오는 7월 26일(일) 서울에서 개최하고, 토론에 직접 참여할 국민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토론회'는 복잡적이고 다층적으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참여형 공론장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광화문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한글의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한자 현판에 한글 현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글 현판 병기’ 방안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 국민 200명과 전문가 모여 ‘역사적 보존 vs 현대적 가치’ 토론

이번 행사에는 국민 200여 명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숙의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전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전문가의 발제와 패널 토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그룹 토론 등 유기적인 구조로 이어진다. 토론회에서는 광화문을 현대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국가 상징 공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형대로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볼 것인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할 계획이다.

>>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소통혁신24’에서 접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이번 토론회는 7월 26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참석할 수 있다. 토론회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은 7월 7일부터 14일까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이나 대국민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소통혁신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윤호중 장관은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 국민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가 새롭게 선보이는 국민 참여형 공론장”이라며, “국가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 현판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에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광화문은 문화유산이자 국가의 상징적 공간이며, 한글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한글날의 시초인 '가갸날' 100주년을 맞은 올해, 이번 토론회가 더 광범위한 국민 여론을 듣고 공감대를 넓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국민참여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향미 (044-205-2421)
		담당자	사무관	김혜지 (044-205-2431)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책임자	과 장	명수현 (044-205-2511)
		담당자	연구관	최경환 (044-205-2563)

